

치 사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곡우의 절기에 경기북부사암연합회가 소중한 정진으로써 열두번째 예술제인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마련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서 매년 경기북부 지역을 순회하여 그 지역에 살아 숨 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불교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백성들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치열한 구도행각을 펼치셨던 한국정신문화사에 위대한 스승이신 지공·나옹·무학 선사님의 삶을 노래한다 하니 선대의 덕화를 친숙하게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랐던 삼대화상의 서원처럼 경기북부음악예술제가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녹이는 감로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며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야단법석을 위해 진력을 다하신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관스님과 양주시사암연합회 회장 혜성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음악제를 준비해주신 200여명의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과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화합의 소리가 사바세계를 어우르는 법향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4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